

형 법

2015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전통시장 등에서 소매치기를 일삼던 甲은 어느 날 장을 보러 나온 A의 가방 안에서 지갑과 귀금속을 훔쳐 돌아서는 순간, 근처에 전에 없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던 甲은 이번 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증거를 깨끗하게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甲은 우선 범행 시 쓰고 있었던 모자를 태워 없앤 후, 함께 살고 있는 사촌동생 乙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지갑은 없애고 귀금속은 보관해달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경찰이 찾아와 물으면 며칠 동안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지갑과 귀금속을 건네받은 乙은 지갑은 한강에 버리고, 귀금속은 며칠 후 매도하여 그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乙을 찾아와 甲의 행적에 대해 질문하였고, 乙은 경찰관에게 甲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30점)

제 2 문. 甲은 A의 집 금고에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甲은 A의 집 마당에 담을 넘어 침입하였는데, 그 순간 A에게 발각되었다. A가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렀다. A는 甲이 휘두르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쓰러졌으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주를 위해 담을 넘던 甲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체포되었다. (총 20점)

1) 甲의 침입 시간이 야간인 경우에 甲의 죄책은? (10점)

2) 甲의 침입 시간이 주간인 경우에 甲의 죄책은? (10점)

제 3 문. 甲은 길가에 세워진 A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한번 몰아본 후 돌려주려는 생각으로 그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 甲은 그 차가 마음에 들어 3일동안 몰고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만난 친구 乙에게 전국을 여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운전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이 차량을 취득하게 된 모든 과정을 알면서 甲의 제안에 동의하여 운전하였다.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걸어가는 B녀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동승시킨 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B녀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운전하다가 B녀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甲과 乙은 B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속력을 높여 주행하던 중, 멀리서 경찰관 C가 차량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이 乙에게 검문소 앞에서 서행하다가 그대로 달아나자고 하였고, 검문소에 이르러 경찰관 C가 차량 옆으로 다가오자 甲과 乙은 경찰관이 다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으로 경찰관 C를 길가로 밀어 붙여 이로 인해 경찰관 C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주 중에 甲은 乙에게 B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자고 하였으나, 乙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기 싫다고 하면서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그 곳을 떠나 버렸다. 甲은 B녀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B녀는 손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별법은 논외로 함) (총 50점)

1) A의 자동차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은? (10점)

2) B녀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은? (20점)

3) 경찰관 C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은? (2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



인사혁신처

형 법

1 1